

## ▶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상편 ◀

###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

- ❶ 자화상 (55문제)-----1쪽
- ❷ 최적전 (51문제)-----20쪽

(2)

-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40문제)-----48쪽
- ❷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30문제)-----69쪽

###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33문제)-----82쪽
- (2)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69문제)-----96쪽

###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1) 첫사랑 (36문제)-----118쪽
- (2) 돌다리 (46문제)-----133쪽
- (3) 성난 기계 (30문제)-----159쪽
- (4) 상기 (31문제)-----180쪽

###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 ❶ 음운의 변동 (63문제)-----201쪽
- ❷ 한글 맞춤법의 원리 (65문제)-----221쪽

◆빠른 전체 정답-----239쪽

◆해설-----242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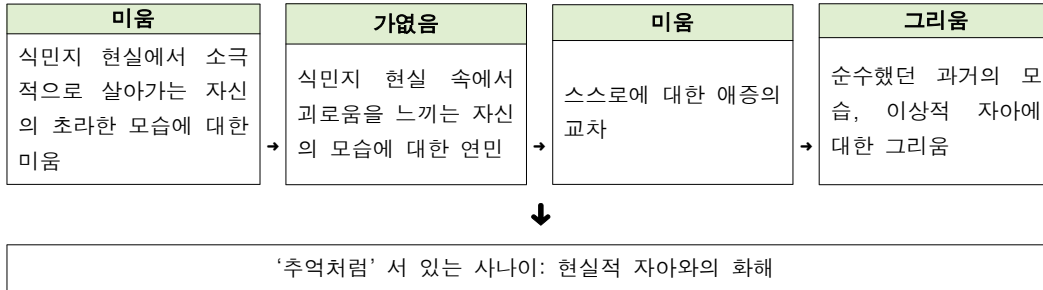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자화상” 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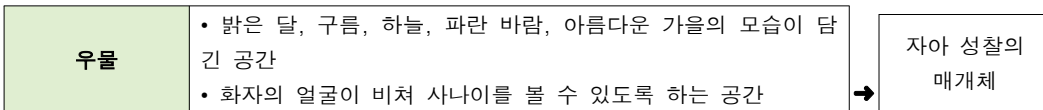
### ◆핵심 정리

화자	외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미움, 가엾음, 그리움을 느끼다가 분연된 자아와 화해함.
제목 및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화상: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는 의미</li> <li>• 우물: 자아성찰의 매개체</li> <li>• 사나이: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현실의 초라한 자아)</li> <li>• 자연: 초라한 자아와 대조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대상</li> </ul>
어조	고백적, 독백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열거법을 통해 표현함.</li> <li>• 2연의 장면이 6연에서 변형·반복됨으로써 구성에 안정감을 부여함.</li> </ul>
시대적 배경	일제 강점기
주제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愛憎)

### 1.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 2. 시어의 상징성



### 3. 윤희주의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 비교

	윤희주, ‘자화상’	이육사, ‘절정’
어조	종결 어미 ‘~입니다’ 등의 사용을 통해 고백적 어조를 형성함.	현재형 시제 및 강력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지적 어조를 형성함.
태도	부정적 현실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지님.	극한적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희망을 추구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임.

❶ 작품 연구 ▶ ‘사나이의 상징적 의미’

<b>사나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li> <li>• 현실 속 초라한 자아</li> </ul>	<b>우물 속 자연의 풍경</b>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
---	--

↓

우물 속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의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사나이’는 화자의 성찰의 대상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초라한 현실적 자아를 상징함.

## “자화상” 교과서 문제

1.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외딴 우물에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li> <li>• ‘사나이’는 누구인가? → 화자 자신이다.</li> </ul>

2. 이 시에서 ‘우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화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 이 시의 제목을 ‘자화상’이라고 지은 까닭을 생각해 보자.

→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4. 이 시에서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 정리해 보자.

행위	우물을 들여다봄.	⇨	돌아가다 생각함.	⇨	도로 가 들여다봄.	⇨	다시 돌아가다 생각함.	
정서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

5. 화자의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보자.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의 의미	자신에 대한 미움과 가엾음과 미움의 정서를 거쳐, 그리움에 도달하는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을 나타낸다.
------------------	--

6. 다음 부분에서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연의 의미	‘사나이’에 대한 인식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니고 있음.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를 지닌 자연과 달리,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미워함.

7. 다음 시구에서 화자가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위에서 살펴본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비교해 보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자신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 떨어져 존재한다고 인식하던 데서 벗어나 자신이 자연 속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사나이'에 대한 미움과 가여움의 심리적 갈등상태로부터 자기 긍정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8. 2연과 6연을 중심으로 이 시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표현상의 특징	효과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 →	열거법을 통해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고,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6연에서 '추억처럼'을 첨가하여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함으로써 화자의 성숙 과정을 짐작케 하고 있다.

9. '자화상'과 '절정', 두 시를 비교해 보자.

	'자화상'	'절정'
어조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고백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단정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태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현실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자화상” 혹은 포인트

1)

우물을 들여다봄. = 자신을 들여다봄. → 자아 성찰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 →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물 「」: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태도

▶ 1연: 우물을 찾아가 자아를 성찰함. 시적 허용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 나열(열거법)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물이 담겨 있음.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 - 화자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됨. ▶ 2연: 우물 속의 풍경

2)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초라한 자아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화자의 정서 ①: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화자의 정서 ②: 자신에 대한 연민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항하던 쪽에서 되돌아서

3)

「」: 자신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화자의 모습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화자의 정서 ③: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5연: 자아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  
화자의 정서 ④: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  
「」: 2연의 반복, 변주 → 성숙한 화자의 모습 ▶ 6연: 우물 속 풍경과 내적 성숙  
지적 허용  
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는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 이상적 자아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거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광신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의 시적화자의 어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 독백적 어조      (나) : 지사적 어조
- ② (가) : 냉소적 어조      (나) : 독백적 어조
- ③ (가) : 의지적 어조      (나) : 사색적 어조
- ④ (가) : 여성적 어조      (나) : 염세적 어조
- ⑤ (가) : 관조적 어조      (나) : 남성적 어조

**광신고등학교 (서울)**

2. (가)의 밑줄 친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겨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려만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만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잘은모르지만의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만/또꽤달았소./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 이상, '거울'

② 잘 보이지 않아//네게 기뻐더니//이젠 너무 잘 보여 아득하고 알망스럽다//게다가 여태 몰랐던 감사한 나도 보인다.  
- 윤경희, '돋보기'

③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 보다.//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 서정주, '국화 옆에서'

④ 감나무에 감꽃이 지고 나더니/아프게도 그 자리에 열매가 맺네/열매는 한참 쑥쑥 자라고/그것이 처음에는 눈이 부신/반짝이는 광택 속/선연한 푸른빛에서/조금씩 변하더니 어느새/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라.//가만히 보면/한자리에 매달린 채 자기 모습만을/불과 일 년이지만 하늘 속에/열심히 비추는 것을 보고, 글썽./말 못하는 식물이 저런/똑똑한 체 잘도 떠돌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자기 모습을 남기는가 생각해 보니/허무라는 심연밖에 없더니라./아, 가을!  
- 박재삼, '홍시(紅柿)를 보며'

⑤ 산에는 꽃이 피네/꽃이 피네/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꽃이 좋아/산에서/사노라네.//산에는 꽃지네/꽃이 지네/갈 봄 여름없이/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광신고등학교 (서울)**

3. (가)의 밑줄 친 ㉠파아란 바람에 사용된 이미지와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은?

- ① 창망한 물굽이에/금시에 지워질듯 근심스레 또 있기에/  
동해 쪽빛 바람에/항시 사념의 머리 곱게 씻기우고  
- 유치환, '울릉도'
- ② 그/수없이 입술이 달은/이 빠진 낡은 사발에/나도 입술  
을 댄다./흡사/정처럼 올라오는/맛걸리 맛  
- 김용호, '주막(酒幕)에서'
- ③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개울물 돌돌돌  
길쭉으로 흘러가고,/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  
구요.  
- 김상옥, '사향(思鄕)'
- ④ 내 마음은 나그네요/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나는 달 아  
래 귀를 기울이며/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
- ⑤ 이는 먼/해와 달의 속삭임/비밀한 울음//한 번만의 어느  
날의/아픈 피 흘림.  
- 박두진, '꽃'

**광신고등학교 (서울)**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 '자화상'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② (나)는 극한적인 상황인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인식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관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의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  
는 초라한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 ④ (나)의 1, 2, 3연에서는 화자가 처한 혹독한 상황을 제  
시하고 있고, 4연에서는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  
다.
- ⑤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  
이 전개되고 있다.

**광신고등학교 (서울)**

5. (나)의 밑줄 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는  
표현 및 발상이 가장 유사한 시어를 고르시오.

- ① 얇은 사(絲) 하이얀 고깔은/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② 조국을 언제 떠났노./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 ③ 내 마음을 아실 이/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 ④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 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광신고등학교 (서울)**

6. (나)에서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면서, 차갑고  
혹독한 이미지를 지닌 시어(2어절 이내)를 찾아 다섯 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  
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  
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이육사, <절정>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7. (가)를 [보기]의 밑줄 친 관점에 따라 해석한 사람은?

< 보 기 >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은 크게 내재  
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관점이란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하며 어조, 운  
율, 표현 기법 등 작품의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한편 외재적 관점이란 작가, 독  
자, 현실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작  
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관점이다.

- ① 연서: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분명한 변화  
를 보이고 있군.
- ② 하은: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겨울처럼 자신  
을 비추며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야.

- ③ 병재: 2연의 표현이 6연에서 유사하게 나오면서 구성  
상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군.
- ④ 담률: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화자는  
현실과 타협, 안주하려는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 ⑤ 진영: 우물 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초라한 자아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군.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특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  
고 있다.
- ②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주제를 부각하였  
다.
- ③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  
러내고 있다.
- ④ 청각적 심상을 지닌 소재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  
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⑤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9. (가)의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보기]의 밑줄  
친 말 중에서 찾으시오.

< 보 기 >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1-(1) 자화상

1. ①

▶(가): 독백적 어조가 자아 성찰 및 태도 반성에 적합, (나): 지사적 어조가 나라를 위하는 강인한 태도에 적합.

② (가)는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는 것이지, 비웃는 냉소적 태도는 아님. ③ (가)가 사색적 어조, (나)가 의지적 어조에 적합. ④ (나)는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염세적 태도라기 보단 강인한 의지를 갖고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려는 태도에 가까움. ⑤ (가)는 거리감을 두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지켜보는 관조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감정을 지닌 채 판단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지사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과 같은 것.
- \*냉소적: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것.
- \*염세적: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
- \*관조적: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

2. ⑤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①: 거울, ②: 돋보기, ③: 국화꽃, ④: 홍시>가 이에 해당함.

◆주제 저장소◆

- ① <거울>: 자아 분열 양상과 현대인의 불안 심리
- ③ <국화 옆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미
- ④ <홍시를 보며>: 홍시를 통해 돌아본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 ⑤ <산유화>: 존재의 근원적 고독

3. ①

▶<빛 바람>이 <파아란 바람>처럼 촉각의 시각화로 되어 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 공감각 ]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 복합 감각 ]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4. ②

▶<관조적 태도>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

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이다. (나)는 부정적 현실을 강인한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조적 태도가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관조적 태도 (★★)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으로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주관적 심리(감정, 정서) 상태가 개입 되어 있으면 관조적 태도라고 보고 어려움

▶넣어둬, 패턴 공략◀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5. ④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도 역설적 표현에 해당.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나를 보내지 않았다)

7. ④

▶일제라는 역사적 현실의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함. 나머지는 내재적 관점의 감상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이상 ↔ 현실

▶응, 헛갈리지 마!◀

행동 vs 행위

- \*행동: 단순히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
- \*행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8. ⑤

▶'~습니다'라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2.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